

국운개척의 사명을 기필코 완수

조찬기도회 인사말

1980년 8월 6일

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!

오늘 이 조찬기도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뜻있는 자리에 나와 주신 한국기독교 지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.

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우리는 국가원수가 졸지에 서거한 비극적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.

이 엄청난 비상시국을 맞아 우리 정부가 국민은 조금도 침착성을 잃지 않고 슬기와 예지로써 난국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.

그러나, 지난봄부터 우리에게는 더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. 나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던 일부 정치인들의 과열된 정치활동, 사회기강의 해이를 틈탄 갖가지 비리, 그리고 일부 학생들의 몰지각한 난동으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으며, 급기야는 불순불자들의 배후 조종에 의하여 불행한 광주사태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.

이러한 상황은 실로 국가존립과 국민의 생존여부를 좌우하는 국가적 위기였다고 하겠습니다.

6.25동란 이후 가장 위급했던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해서, 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하여 국가의 안정기반을 구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.

다행히 주님의 각별하신 은총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은 슬기롭게 이 난국을 극복하고 이제 새 시대, 새 사회의 건설을 위한 대열에 서서 힘차게 매진하고 있습니다.

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모두 사심없이 일치단결해서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번영을 이루어 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.

우리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!

지금 우리는 무거운 짐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.

그것은 이 어렵고도 막중한 국운개척의 사명을 기필코 완수하여 안정된 복지국가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인 것입니다.

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달성될 수 있으리라고 믿으며,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과 함께 이러한 결의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.

우리 국가와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해,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과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.

감사합니다.